

한국농어촌공사 내년 전남지역 주요 사업

21개 저수지 뚝높여 물그릇 확대...영산강변 '국민쉼터'로

인류문명은 황하, 나일강 등 강에서 비롯됐다. 농경(農耕)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우리나라 식량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100년 역사의 공기업이다.

◇21개소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 박차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하는 '수위관리 협의회'를 결성해 갈수기 관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 사업은 영산강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또한 기존 '통선문식 어도' 대신 용어와 뱀장어 치어 등 회유성 어류를 위한 '자연형 수로식 어도(27ha)'가 조성되며...

◇영산강의 미래를 준비한다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다.

영산강사업단(단장 조규정)이 추진하는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영산강에 집중되는 홍수를 바다로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하지만 가사문화권의 문화유산과 생태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자 동양 최대의 섹터 게이트(sector gate) 부채꼴로 여는 댐 수문) 제수문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 사업은 영산강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21억원을 들여...

이 외에도 전남지역본부는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고령 은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는 '농지은행 사업'을 비롯해...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효시는 1906년 대한제국 탁자부의 수리조합 조례 공포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전북 옥구군에 처음 설립된 수리조합(옥구 서부 수리조합)이다.

농촌근대화가 본격 추진된 1970년대에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가 합병, '농업진흥공사'가 탄생했고, 외국차관을 들여와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80→410m)하는 2공구 사업과 영암호~영산호간 연락수로 확장(15~140m)하는 3공구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영산강의 홍수처리 능력이 48% 증가돼 침수면적 개선효과가 4020ha에 달하고,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목포와 영암, 해남 등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지역본부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공사의 보유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영암과 진도에 태양광발전소 3개소(4000kw)를 설치했으며, 담양과 장성댐의 소수력발전소 2개소(2495kw)는 상업발전전에 들어갔다.

농촌근대화가 본격 추진된 1970년대에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가 합병, '농업진흥공사'가 탄생했고, 외국차관을 들여와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농어촌진흥공사(농업진흥공사 1990년 개칭),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발조합 연합회를 합쳐 '농업개발공사'를 설립했다.

2005년 12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바꿨으며, 2008년 12월 농촌과 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어떻게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F1 경주장 부지(185ha, 56만평)의 경우, 지난 10월 20일 부지대금 287억원(평당 5만1240원)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완납받아 부지의 양도·양수가 끝났다.

농어촌공 박재순 사장

"J프로젝트부지 공방 조속 매듭 나주 사육 이전 3년내 마무리"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1급(관리관)까지, 그리고 집권당 최고위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제6대 신임사장까지. 박재순 사장의 이력이다.

-취임을 축하한다

▲감사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지방행정과 농림수산행정을 수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어업인과 함께 고민을 해왔다.

-향후 공사 운영 계획은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공기업'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농어촌공사는 풍부한 토지자원과 수자원, 그리고 전곡을 아우르는 조직,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토대로 경영을 효율화시키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중점 사업은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용수를 확보하며, 농어촌 발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공사의 주된 업무다. 특히 농업분야의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정책적으로 탄기방식 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전남도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의 부지 양도양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왔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와 F1 경주장 토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땅을 내주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F1 경주장 부지(185ha, 56만평)의 경우, 지난 10월 20일 부지대금 287억원(평당 5만1240원)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완납받아 부지의 양도·양수가 끝났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에 양도하려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외 지구인 부동산구 기업도시 부지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 중이므로 이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양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데 이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신사옥 부지는 이미 매입했으며 총 부지면적이 11만5466㎡로 지상 18층, 지하 1층 건물로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년 안으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초에는 신사옥 건립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사옥 준공이 완료되는 2014년 하반기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계획인가.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정책적으로 탄기방식 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기반 시설 일체 정비를 하려고 한다. 비영농기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계획인가.

▲고졸자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 정책적으로 탄기방식 공사 발주에서 지역·중소업체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중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기반 시설 일체 정비를 하려고 한다. 비영농기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영산강 사업단은 광주호 등 저수지 뚝높이기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호 조감도(왼쪽)와 영산강하구둑 1공구 배수갑문 투시도.

아이엘리시아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타사지) 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의 대형홀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명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